

니알라토텍

Nyarlathotep

H.P. 러브크래프트 (1890-1937)

1920년 발표 · 한국어 번역 · 2026-05-26

vLLM Gemma 4 26B-A4B AI 번역

책 정보

원전

H.P. Lovecraft, "Nyarlathotep" (The United Amateur 1920
년 11월)

저자

하워드 필립스 러브크래프트 (Howard Phillips Lovecraft,
1890–1937)

원전 출처

Wikisource (퍼블릭 도메인) (퍼블릭 도메인)

번역

vLLM Gemma 4 26B-A4B FP8 (GB10 로컬)

발행

sosig.shop/book · 2026-05-26

번역 정책

가독성을 우선해 옮기되 코스믹 호러 특유의 음산한 격조를 살렸습니다. 고유명사·핵심 표현은 작품 내내 일관되게 옮겼습니다.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으니, 정식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쉽게 읽는 한 편"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H. P. 러브크래프트

언제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벌써 몇 달 전의 일이다. 당시 사회를 감돌던 긴장감은 끔찍할 정도였다. 정치적, 사회적 격변의 계절에 더해, 기괴하고 음산한 물리적 위험이 사람들을 짓눌렀다. 그것은 어디에나 존재하며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위험이었다. 오직 밤의 가장 끔찍한 환상 속에서나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위험 말이다.

사람들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걱정해 잠겨 있었고, 그들은 경고와 예언을 속삭였다. 하지만 누구도 그 말을 의식적으로 되풀이하거나, 자신이 그 말을 들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온 땅에는 괴물 같은 죄책감이 감돌았고, 별과 별 사이의 심연으로부터 불길한 냉기가 휘몰아쳐 어둡고 외로운 곳에 있는 사람들을 떨게 만들었다. 계절의 흐름조차 악마에게 홀린 듯 뒤틀려 있었다. 가을의 열기는 공포스러울 정도로 길게 이어졌다. 사람들은 모두 직감했다. 이 세계와, 어쩌면 이 우주 자체가 이미 알려진 신이나 힘의 통제를 벗어나, 미지의 신과 힘의 손아귀로 넘어갔음을 말이다.

그때 니알라토텍이 이집트에서 나타났다. 그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으나, 그는 고대 토착 혈통의 기운을 풍겼으며 파라오와도 같은 모습이었다. 펠라힌들은 그를 보자 이유도 모른 채 무릎을 꿇었다. 그는 자신이 2,700년이라는 암흑의 세월을 뚫고 일어났으며, 이 행성에는 존재하지 않는 곳으로부터 전해지는 메시지를 들었다고 말했다.

니알라토텍은 문명 세계로 발을 들였다. 그는 검고 날씬한 체구에 불길한 기운을 띠고 있었으며, 늘 유리와 금속으로 된 기이한 도구들을 사들여 그것들을 한층 더 기괴한 장치로 결합하곤 했다. 그는 전기와 심리학 같은 과학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다. 또한 그는 관객들을 할 말을 잃게 만드는 힘을 선보였는데, 그 능력은 오히려 그의 명성을 엄청나게 드높였다. 사람들은 서로 니알라토텍을 만나보라고 권하면서도, 동시에 몸서리쳤다.

니알라토텍이 가는 곳마다 안식은 사라졌다. 깊은 밤이면 악몽에 사로잡힌 비명 소리가 정적을 찢어놓았기 때문이다. 악몽의 비명이 이토록 공공연한 문제가 된 적은 전에도 없었다. 이제 현자들은 차라리 깊은 밤의 잠을 금지할 수 있기를 바랄 지경이었다. 다리 아래로 흐르는 초록빛 물결과 병색이 완전한 하늘 아래 무너져가는 오래된 첨탑 위로 창백하고 가련한 달빛이 일렁일 때, 도시를 뒤흔드는 저 비명 소리가 달을 그토록 끔찍하게 괴롭히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니알라토텍이 나의 도시에 나타났던 때를 기억한다. 셀 수 없이 많은 범주가 들끓는, 거대하고 오래되었으며 끔찍한 그 도시에 말이다. 친구는 내게 그에 대해 이야기해주었다. 그가 보여주는 계시가 얼마나 강렬한 매혹과 유혹을 품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들려주었다. 나는 그의 심연에 숨겨진 미스터리를 파헤치고 싶어 열망으로 몸을 떨었다.

친구의 말에 따르면, 그 계시들은 나의 가장 격렬한 상상력조차 뛰어넘을 만큼 끔찍하고도 압도적이었다고 한다. 어두운 방 안, 스크린 위로 투사되는 형상들은 오직 니알라토텍만이 감히 예언할 수 있는 것

들을 예언했다. 또한 그가 튀기는 불꽃의 파편 속에는, 인간의 눈동자 속에서만 드러나는, 지금까지 그 누구도 빼앗겨 본 적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고 했다. 니알라토텐을 아는 자들은 다른 이들은 결코 볼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한다는 소문 또한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무더운 가을이었다. 나는 불안하게 들뜬 군중 속에 섞여 니알라토텐을 보기 위해 그 밤을 지새웠다. 숨이 막힐 듯한 밤을 지나, 끝도 없이 이어지는 계단을 올라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방에 다다랐다. 스크린 위로 비친 그림자 속에서, 나는 폐허 사이에 놓인 후드를 쓴 형체들을 보았다. 쓰러진 기념비 뒤편으로는 노란 악마의 얼굴들이 기분 나쁘게 엿보고 있었다. 또한 나는 세상이 암흑에 맞서 싸우는 광경을 목격했다. 머나먼 우주에서 밀려오는 파괴의 물결에 맞서, 희미하게 식어가 는 태양 주위를 휘돌고 소용돌이치며 사투를 벌이는 세상을 보았다.

그때 구경꾼들의 머리 주위로 불꽃이 경이로운 모습으로 튀어 올랐고, 머리카락은 곤두섰다. 내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기괴한 그림자들이 나타나 사람들의 머리 위에 웅크리고 앉았다. 다른 이들보다 냉철하고 과학적인 태도를 유지하던 내가, 이것은 "사기"이며 "정전기"일 뿐이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항변하자, 니알라토텐은 우리 모두를 밖으로 몰아냈다. 우리는 어지러운 계단을 내려와 덥고 습한, 인적 끊긴 한밤중의 거리로 내던져졌다.

나는 무섭지 않다고, 결코 무서워할 리 없다고 크게 비명을 질렀다. 다른 이들도 위안을 얻으려는 듯 나와 함께 비명을 내질렀다. 우리는 서로에게 도시가 평소와 다름없이 그대로이며, 여전히 살아있다고 맹

세했다. 전등 불빛이 흐릿해지기 시작하자 우리는 그 모임을 끊임없이 저주했고, 공포로 일그러진 우리 자신의 기괴한 얼굴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초록빛 달로부터 무언가 내려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 달빛에 의지하기 시작하자,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기이한 행군 대형을 갖추며 떠밀리듯 움직였다. 목적지가 어디인지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었으나, 마치 그곳을 알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한 번은 길바닥을 내려다본 적이 있는데, 보도블록은 풀에 밀려 어긋나 있었고 녹슨 금속 선조차 거의 보이지 않아 전차가 지나다니던 길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또 한 번은 창문도 없는 낡은 전차 한 대가 거의 옆으로 쓰러진 채 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지평선 너머를 둘러보았지만 강가의 세 번째 탑은 보이지 않았고, 두 번째 탑의 실루엣은 꼭대기 부분이 너털너털하게 깎여 있었다.

그때 우리는 좁은 열을 지어 흩어졌는데, 각 열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끌려가는 듯했다. 한 무리는 왼쪽의 좁은 골목 안으로 사라졌고, 그 뒤로는 충격적인 신음 소리만이 메아리쳤다. 다른 무리는 잡초가 무성한 지하철 입구로 줄지어 들어갔는데, 그들이 내뿜는 울음 섞인 웃음소리는 광기에 차 있었다. 내가 속한 무리는 탁 트인 들판 쪽으로 빨려 들어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무더운 가을 날씨와는 전혀 다른 한기가 느껴졌다. 어두운 황무지로 성큼성큼 걸어 나가자, 우리 주변에는 사악한 눈들이 달빛을 받아 지옥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그 눈은 발자국 하나 없이 불가해한 모습이었으며, 오직 한 방향으로만 쓸려 내려가 있었다. 그 눈이 쓸려 내려간 곳에는 반짝이는 눈 벽 때문에 더욱 검게 보이는 거대한 구렁이 놓여 있었다. 우리 무리는 몽롱한 걸음으로 그 구렁을 향해 나아갔는데, 그 모습이 무척이나 위태롭고 가냘퍼 보였다. 나는 뒤처져 머뭇거렸다. 초록빛 달빛이 비치는 눈 사이로 벌어진 그 검은 균열이 너무나도 끔찍했기 때문이다. 동료들이 사라질 때 불안한 통곡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들은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머뭇거릴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마치 앞서간 자들이 손짓이라도 하는 것처럼, 나는 거대한 눈더미 사이를 반쯤 떠다니듯 지나갔다. 공포에 몸을 떨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형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비명 지를 듯한 의식을 지녔으나 멍청하게 망상에 빠져 있는 존재. 오직 태초부터 존재해 온 신들만이 그 정체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손이라 부를 수도 없는 손아귀 속에서 꿈틀거리는, 병들고 예민한 그림자다. 그 그림자는 부패한 창조물이 빔어낸 소름 끼치는 자정의 시간을 지나 눈먼 채 휘몰아친다. 도시였던 곳이 궤양처럼 짓물러버린 죽은 세계들의 시체, 그리고 창백한 별들을 스치며 그 빛을 가냘프게 흔드는 도살장의 바람 사이를 헤집고 지나간다.

세계 너머에는 괴물 같은 형상들의 희미한 유령들이 떠돌고, 이름 없는 암석 위에 자리 잡은 불경한 신전의 기둥들이 반쯤 보일 듯 말 듯서 있다. 이 기둥들은 우주 너머의 공간 아래에 뿌리를 내린 채, 빛과 어둠의 구체 위로 아찔한 진공을 향해 솟아 있다.

이 역겨운 우주의 묘지 너머에서는, 시간을 초월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두운 방들로부터 둔탁하고 미치도록 울려 퍼지는 북소리와, 신성모독적인 피리들의 가늘고 단조로운 울음소리가 들려온다. 그 혐오스러운 두드림과 피리 소리에 맞춰, 거대하고 어두운 궁극의 신들이 느릿하고 어색하며 황당하게 춤을 춘다. 그들은 눈 멀고 목소리 없으며 지성조차 없는 가고일들, 바로 니알라토탭을 영혼으로 삼은 존재들이다.